학교·학생·직원간의 신뢰회복절실

연구활동 진흥할 제도적 장치 필요

김 수 곤 (신을)기획관리실장

"일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읍니다."

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으로 신임 발령된 김수곤 교수(정경대·경영학)는 중책을 맡게 된 소감을 이 한마디로 압축했다.

평소 학생들에게 "일이란 놀이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참을성을 요한다고 가르쳐곤 했었다는 김실장은 보직교수를 맡으면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다시한번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5일로 발령받은 지 꼭 한달을 맞게 되는 그는 그동안 업무 파악과 방중에 발생했던 학내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했다고 특히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뻔했던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서 "학교, 노조 양측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반문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노조와의 문제라든가 학생들과의 등록금 협상 등 학내의 여러문제들에 대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도에 따라 일을 처리해나가겠다는 '정도론'을 밝히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대학이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도 우리 대학은 그 효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박실장은 지적하면서 교육방법 개혁을 위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1년기준 1인당 연구논문수가 0.9편이라는 사실은 대학의 심각한 지기 정세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대학내의 연구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학내문제는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김실장은 "학교, 학생, 직원 3주체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신념을 밝혔다.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그의 말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않는 무수히 많은 대학의 모습들을 찬찬 보도록 노력하십시오"라는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오랜 제직생활을 거쳐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하는 조언으로 끝을 맺었다.

김실장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상 취업전선에 뛰어들기가 막막해 학부시절 과를 담당하는 교수님을 찾아뵙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젠 혼자서 내 앞가림을 해야지"하고 꾸짖으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고 회상했다.

사실 등록금협상이나 노조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와 학생, 교직원간에 불신이 쌓여왔던 것이 사실임을 비추어볼 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신뢰의 회복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다는 그의 문제의식이 이후 학내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경)

서 의 영 (수원) 학생처장

"대화와 원칙, 조화 이룰 터"

"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학생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신임 학생처장 서의영(외국어대·중문)교수는 취임소감을 밝힌다.

현재 정정이 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협상에 대해서 "학생회의 교육재정 확보투쟁에 공감하고 성원을 보낸다. 그렇지만 학교 학생 상호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등록금 협상에 있어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측의 결정사항이지 학생측과의 협의사항이 아니다. 등록금 인상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학생측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학교측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학생회측의 의견이 대립돼 협상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너무 한 부문에 치중함으로써 여타 실현 가능한 제반 문제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회의 사업 풍토를 지적한다.

64년 본교 문리대 졸업과에 입학, 71년 졸업한 동문 선배이기도 한 서처장은 제자들이 자신의 가슴에 '64학번'이라는 명찰을 달아준 기억을 떠올리며 동문일을 재삼 강조하기도 했다.

85년 본교에 부임하여 성적이 미달된 제자들에게는 거침없이 "F"를 선사하는 것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가시없는 행동을 20여년 교직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다"는 서처장은 학생회의 집행부의 행사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들로 준비해야 하며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하는 새로운 수원캠퍼스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학생처장직을 맡기 전에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연구실에 있었다는 얘기처럼 수원캠퍼스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윤)

전기호 경영대학원장

"학위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

현실에 맞는 강좌 개발예정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발령이었다"며 보직 필령의 소감을 밝히는 신임 경영대학원장 전기호(정경대·경제)교수.

그러나 경영대학원 원장직을 맡은 이상 그 직분을 다하려는 그의 일에 대한 의욕과 추진력은 자못 놀라운 것이었다.

부임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전원장은 이미 경영대학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단계에 와있었다.

주로 경영분야의 기업이나 공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로 하여금 야간 수업을 통해 과학적 이론을 겸비하게 하여 그들이 다시 엘리트로서 나라에 봉출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이 바로 경영대학원이다.

현재 매학기 2백여명을 선출하는 경영대학원은 석사과정, 최고경영자과정, 연구과정 등의 분류를 두고 있다. 이중 경영학과를 비롯, 6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석사과정은 특수대학원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적으로 학위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원장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학문수준 고양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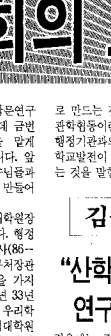
또한 6개월 코스인 최고경영자 분야는 경영부분에 있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석사과정과는 달리 실무와 산지식에 주력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이론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사실 경직되어 운영되어 왔던 부분이 큰데 신임 경영대학원장은 "다음학기부터는 새롭고 흥미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경영대학원의 장기적 발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전원장은 경영대학원의 부설연구소 '산업관계연구소'에서 펴내는 '산업논총' 편집위원회의 명칭을 '운영편집위원회'로 개칭하는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사람존중이라는 신조를 가진 전기호 원장은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본교에서 마쳤으며 교무처장, 정경대학장 등의 보직경험과 대교수협의회의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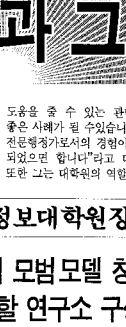
"경쟁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젊은이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는 것이 또한 진정한 젊은이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았을 때 이 사회, 나라는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며 이 나라를 짊어 질 역군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라고 강변했다.

전학장은 지난 1985년 8월달 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일본의 동경대학 경제학부 객원연구원으로 지낸 바 있다.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으로 탁구를 즐겨 하는 학장은 바둑에도 프로1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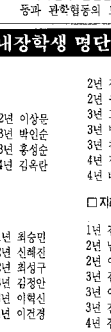
신임보직교수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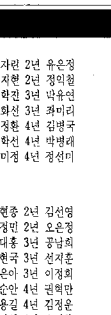
(김수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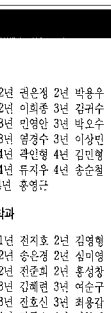
(서의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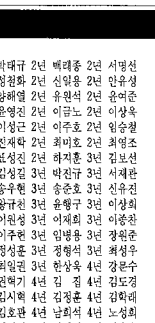
(김태영 교수)



(전기호 교수)



(김용래 교수)



(정복근 교수)

김태영 대학원장

"이공계열 집중 육성"

교수·학생 공동세미나 계획

"전문화시대라는 사회의 조류에 맞추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이공계열을 중점적으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신임 대학원장에 부임한 김태영(문리대·사학)교수는 대학원을 명실공히 학문의 전당으로 만들겠다고 취임후 첫 포부를 밝혔다.

현재 본교 대학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시업에는 '연구강의제도', '포스트 닥터제도', '연구박사제도'등을 세미나, 특강이 있다. 다소 생소한 '포스트 닥터제도'란 박사과정을 최근에 마친 재원을 대상으로 강의와 연구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

김태영 신임 대학원장은 이 제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나면 연구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스트닥터제도는 학위 취득을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좀더 높은 질의 연구업적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한편 '연구강의제도'란 대학원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연구박사제도'는 연구자 본인의 연구업적을 쌓게하는 것이라고 아울러 설명했다.

공개강좌로 진행되는 특강은 대학원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현대예술감상 특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교수와 학생이 일정한 주제 아래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세미나도 계획 중이다.

대학원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최종과정으로 변질해 버린 오늘의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는 김 원장은 우리나라 대학원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전문성의 결여, 재정의 빈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부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대학원의 위상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과 사회적 차원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당국과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 단시일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반여건이 어렵더라도 개개인의 학문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을 당부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거의 모든 답을 대학원의 전문화, 사회의 발전과 연관해서 밝힌 김 원장은 "사회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지나친 개인주의를 허물고 전체 속에서 자신의 자리 매김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란 말로 취임 인터뷰를 맺었다. (鐵)

경희의 도약과 그 주역들

"공직생활을 마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바램이었는데 급변에 산업정보대학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앞으로, 먼저 봉직했던 교수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대학원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신임 김용래 산업정보대학원장은 겸손하게 소감을 밝힌다. 행정고시 합격이후 경기도 지사(86-87), 서울시장(88), 총무처장관(87-90)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용래원장은 90년 33년간의 공직생활 마감이후 우리학교 평화복지대학원과 행정대학원 그리고 여러대학에서 객원교수와 특강을 하기도 했다.

김원장은 수원캠퍼스와 산업정보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산학협동과 관학협동의 모범적인 모델로 만드는 것이 포부라고 말했다. 관학협동이란 학교가 지역사회 행정기관과의 교류, 지원을 통해 학교발전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수원캠퍼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관학협동의 좋은 사례가 될 수있습니다. 저의 전문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인다. 또한 그는 대학원의 역할로 교육, 연구, 봉사 세가지를 들고 그것을 실제로 담당할 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산업정보대학원장 이외에도 공직생활을 끝내면서 시작한 환경미화원 후원회, 서울올림픽 선양사업회등의 일을 맡아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대학원에 기금 특강을 하고 있기도 특히 환경미화원후원회 사업은 후원자수가 5천여명에 이를만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소시민화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안일함만을 추구하기 보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하려고 하고 의리가 절실히 요청된다.

더불어 대입부정에 대해 그 원인이 사학재정에 있다고 피력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인다. 앞으로 그의 전문행정가로서의 경험과 열정이 우리학교 발전에 일익이 될것을 기대해 본다. (보영)

김용래 산업정보대학원장

"산학·관학협동의 모범모델 창출"

연구·봉사 담당할 연구소 구상

경수에는 주변의 삼성전자, 금성반도체등 공업단지와 서해안 시대를 맞아 관광과 배후지역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학교발전이 지역사회개발에

정복근 (서울)연구처장

"효율적인 연구환경 이룩"

교수연구년제 등 추진

올해 서울캠퍼스에 신설된 연구처의 처장직에 취임한 정복근(문리대·물리)교수를 만났다.

"축하받을 일은 아닙니다. 교수는 제자 연구에 파묻혀 학생을 가르쳐드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기타업무로 연구에 몰두할 수 없으니까요"라며 축하의 인사에 답하는 정교수는 "많은 바 책임을 다해 여러 교수들의 연구 뒷받침에 힘쓸 생각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힌다.

이공계 학과가 수원으로 이전한 서울캠퍼스에 있어 연구처의 신설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정교수는 연구처 신설에 대해, 연구처 설치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국가운영재단들의 건장사항이고 연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술적, 과학적 학문이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교수들의 연구효율성 향상과 그로인해 얻어질 학교의 위상 진작을 위해 연구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내외에서 지금되는 연구비의 중앙집중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각 연구에서 얻어지는 업적들의 냉철하고 공정한 평가와 여러 연구소에 설치된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관리등 신설연구처의 할 일은 산적해 있다"고 연구처의 역할을 말한다.

앞으로 연구처는 학교법인 정관에 연구처에 대한 규정을 첨가하여 위치를 확고히 하고 각 부처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박사제도, 교수연구년제등의 활성화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다른대학에 비해 작게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연구처 규모에 대해 정교수는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기 보다는 지금은 작아도 일정시간 후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처로 중실히 성장을 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대학의 사명인 연구, 사회봉사, 교육중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풍토 쇄신을 위해 학교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료, 학부모, 학생들이 다같이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모든 경희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경희)

1993학년도 제1학기 서울캠퍼스 교내장학생 명단

□국문학과

1년 박윤희 1년 유성혜 1년 임채훈
2년 김경원 2년 김형수 2년 박도준
2년 이 선 2년 이남숙 2년 이수진
2년 임창순 2년 장미라 2년 최용주
3년 강인숙 3년 강혜진 3년 김병우
3년 김영아 3년 성낙용 3년 이순미
3년 이승우 3년 이신화 4년 김동건
4년 김민정 4년 문혜란 4년 박선영
4년 편준호 4년 한정아 4년 호정은

□영문학과

1년 김은진 1년 문경란 1년 이병진
2년 구본화 2년 권윤숙 2년 김신화
2년 김희선 2년 노현정 2년 서태철
2년 송우석 2년 신동진 2년 안진웅
2년 오정규 2년 이은화 2년 정은수
3년 권승택 3년 김외신 3년 김정희
3년 김주희 3년 노현준 3년 박정은
3년 배나홍 3년 백승무 3년 이해준
3년 임미선 3년 임현묵 3년 조현아
3년 하석진 3년 황영보 4년 김미정
4년 문재동 4년 박지영 4년 송인석
4년 이은정 4년 정용환 4년 최영숙
4년 홍성철 4년 황상호

□사학과

1년 임상훈 1년 정찬도 1년 조누리
2년 김성호 2년 김성규 2년 김수연
2년 김수진 2년 박주영 2년 박현희
2년 임한홍 2년 자혜영 3년 고선규
3년 김 일 3년 김태연 3년 박은영
3년 박찬형 3년 오승민 3년 이석민
4년 남정욱 4년 상용주 4년 이중훈
4년 정영복 4년 조평기 4년 지혜영
4년 황희선

□철학과

1년 강민석 1년 신성우 2년 이상문
2년 이영선 2년 최일호 3년 박인순
3년 신성우 3년 이 삼 3년 홍성순
3년 김동기 4년 김소성 4년 김옥란
4년 김은성 4년 박원숙

□수학과

1년 백근화 1년 채규주 1년 최승민
2년 김지지 2년 김효경 2년 신혜진
2년 이인호 2년 이현주 2년 최성구
3년 김미정 3년 김윤희 3년 김정안
3년 오장룡 3년 이른재 3년 이혁신
4년 권순조 4년 김혜숙 4년 이건경
4년 이명숙 4년 정윤희

□물리과

1년 손우성 1년 한학승 2년 박광익
2년 방종헌 2년 안영환 2년 이 준
2년 장재영 3년 권용백 3년 김형욱
3년 오석종 3년 전민아 3년 정수월
3년 조병수 4년 남동석 4년 오종혁
4년 유제호 4년 이근수 4년 이석민
4년 전홍빈 4년 조 현 4년 최영훈

□화학과

1년 공준구 2년 김튼섭 2년 박수진
2년 설경미 2년 정동성 3년 김정호
3년 박상희 3년 송승용 3년 이선영
3년 임성룡 4년 김배호 4년 심지연
4년 전유문 4년 정희선

□생물학과

1년 강유정 1년 김지은 1년 신상민
1년 윤종민 1년 홍상익 2년 강 호
2년 김 욱 2년 박재린 2년 유은정
2년 유태성 2년 이지현 2년 정익철
3년 고은영 3년 김학진 3년 박유선
3년 방홍옥 3년 신화선 3년 좌미리
3년 권강우 3년 최정환 4년 김병국
4년 김형민 4년 문학선 4년 박병래
4년 배준섭 4년 이미경 4년 정선미

□지리학과

1년 김도겸 1년 임현중 2년 김선영
2년 남윤지 2년 손정빈 2년 오은정
2년 이지영 2년 황대홍 3년 공남희
3년 김항주 3년 김현국 3년 선지훈
3년 이미경 3년 이은아 3년 이정희
3년 전원주 3년 현순만 4년 권혁만
4년 김연실 4년 김용길 4년 김정운
4년 박제모 4년 서영석 4년 손희정
4년 이규성 4년 이월화 4년 최유선

□법학과

1년 김경훈 1년 김대규 1년 김상억
1년 김홍준 1년 신병제 2년 김강천
2년 김윤규 2년 김정환 2년 김종우
2년 명철주 2년 박경학 2년 박보훈
2년 양민석 2년 이기영 2년 이청우
2년 전상우 2년 최상진 2년 한재경
2년 함현정 3년 구은영 3년 김영상
3년 김현정 3년 박용호 3년 박준연
3년 손준호 3년 손준호 3년 안태용
3년 양철용 3년 이재원 3년 임재인
3년 장석재 3년 장윤석 3년 조진만
3년 차경진 4년 김미애 4년 김성훈
4년 김영일 4년 남 일 4년 박용준
4년 서순석 4년 송영우 4년 윤상달
4년 이경희 4년 이성호 4년 이영진
4년 최지영 4년 한승옥 4년 홍금표
4년 황승규

□행정학과

1년 정혜훈 2년 권은정 2년 박용우
2년 이강철 2년 이희종 3년 강라수
3년 류낙형 3년 민영인 3년 박오수
3년 서현수 3년 윤경수 3년 이상민
3년 홍석만 4년 곽인형 4년 김민형
4년 노연석 4년 류지수 4년 송순철
4년 정광우 4년 홍영근

□정치외교학과

1년 김형오 1년 전지호 2년 김형형
2년 배 경 2년 송은경 2년 심미영
2년 이세훈 2년 전준희 2년 홍성창
3년 김성한 3년 김제련 3년 여순구
3년 이동엽 3년 전호신 3년 최용갑
3년 홍경표 4년 김동오 4년 김종민
4년 박종로 4년 서상표 4년 안광수
4년 오태민 4년 정병석 4년 하태현
4년 황희정

□신문방송학과

1년 이동섭 1년 최지원 2년 강승통
2년 김우원 2년 김홍배 2년 백정기
2년 서 진 2년 윤기영 2년 장동현
2년 조문식 2년 차상욱 2년 홍준용
2년 황석희 3년 김주희 3년 서정훈
3년 윤영희 3년 이성문 3년 장혜정
3년 현지용 4년 나재용 4년 방선영
4년 서영진 4년 송유섭 4년 옥경자

□경제학과

1년 김현석 1년 문경준 1년 손규원
1년 송현도 1년 이삼희 1년 이현우
1년 전진우 1년 전재준 2년 곽학근
2년 김남희 2년 김용석 2년 나윤기
2년 남임표 2년 박상균 2년 박영진
2년 박태규 2년 백래종 2년 서명선
2년 성창화 2년 신일용 2년 안윤상
2년 양해열 2년 유원석 2년 윤여준
2년 윤영진 2년 이금노 2년 이상욱
2년 이성근 2년 이주호 2년 임승철
2년 진재학 2년 최미호 2년 최영조
2년 표성진 2년 하지홍 3년 김보선
3년 김성집 3년 박진규 3년 서재환
3년 송우현 3년 송준호 3년 신우진
3년 왕규천 3년 윤행구 3년 이상희
3년 이원상 3년 이재희 3년 이웅찬
3년 이주현 3년 임방용 3년 장원준
3년 정상훈 3년 정형석 3년 최상우
3년 최일권 3년 한상욱 4년 강은수
4년 권혁기 4년 김 집 4년 김도경
4년 김시혁 4년 김정훈 4년 김학래
4년 김호관 4년 남희석 4년 노성희
4년 민경석 4년 방대식 4년 변용수
4년 송재우 4년 안승용 4년 옥정석
4년 이계동 4년 이범용 4년 이정수
4년 정기수 4년 정인호 4년 홍민희

□경영학과

1년 강석원 1년 곽재희 1년 김 민
1년 김용집 1년 안상지 1년 윤여철
1년 이행한 1년 정한남 2년 강태복
2년 곽수연 2년 권양선 2년 권지홍
2년 김경원 2년 김봉석 2년 김선영
2년 김일경 2년 김종석 2년 김진영
2년 김훈권 2년 문 관 2년 박종윤
2년 변상훈 2년 손상현 2년 송태문
2년 이경재 2년 이행관 2년 이승현
2년 이신재 2년 이창석 2년 이재훈
2년 임준영 2년 임정빈 2년 임희순
2년 정순영 2년 정재석 2년 주현태
2년 최규서 2년 현재훈 2년 홍덕호
3년 김태준 3년 김기수 3년 김상준
3년 김준희 3년 김철민 3년 김태호
3년 나만수 3년 나은희 3년 문선종
3년 서영균 3년 손영우 3년 심상희
3년 안정섭 3년 유정호 3년 이윤기
3년 이재용 3년 이재진 3년 이정근
3년 이종규 3년 이찬호 3년 정효원
3년 조준섭 3년 지윤진 3년 최병철
3년 최원우 3년 홍정석 4년 강동호
4년 국소희 4년 김 찬 4년 김성익
4년 김현우 4년 류태혁 4년 박성식
4년 박정우 4년 성무걸 4년 신진명
4년 안용찬 4년 연제무 4년 오형일
4년 이규동 4년 이상민 4년 이성원
4년 이윤동 4년 이호석 4년 임재현
4년 장성원 4년 주기홍 4년 최동환
4년 최의주 4년 황남용

□무역학과

1년 남 윤 1년 배준범 1년 양진서
1년 이시현 1년 이종광 2년 강도우
2년 권재범 2년 김유승 2년 김정수
2년 김정현 2년 김창남 2년 노인성
2년 노형준 2년 백진혁 2년 송영수
2년 유광용 2년 이 호 2년 이식현
2년 이영태 2년 이창하 2년 정동혁
2년 정일식 2년 조영준 2년 최진호
3년 김수영 3년 김순영 3년 김종빈
3년 김주완 3년 박준영 3년 박진수
3년 박현호 3년 송민호 3년 신창현
3년 심중화 3년 오원석 3년 오정식
3년 유길환 3년 이범준 3년 이상민
3년 임홍택 3년 최석범 3년 최석영
3년 최현숙 4년 강경희 4년 김성기
4년 김용대 4년 박홍화 4년 서정재
4년 윤주혁 4년 윤혜숙 4년 이범준
4년 이상준 4년 이용찬 4년 이희윤
4년 정용인 4년 조승현 4년 진창석
4년 최윤석

□회계학과

1년 백승엽 1년 이은주 2년 권배성
2년 남상석 2년 박승환 2년 양진희
2년 유상건 2년 이종수 2년 장선아
2년 정인우 2년 최지희 3년 강정호
3년 김은순 3년 김정태 3년 김판수
3년 류학석 3년 서선석 3년 이동주
3년 이상학 3년 이정엽 3년 최성우
4년 김병재 4년 김명미 4년 김재영
4년 김중석 4년 김종혁 4년 류호윤
4년 박영석 4년 손병수 4년 이승준
4년 임진관 4년 조진호 4년 조진희
4년 지영환 4년 최경석 4년 황준일

□미술교육학과

1년 이혜영 2년 김소형 2년 노명철
2년 변종필 2년 이남희 3년 강정하
3년 김경미 3년 김경희 3년 김재평
3년 신세정 3년 안선희 3년 안소영
3년 김상아 4년 두양진 4년 선혜영
4년 손미선 4년 윤정희 4년 윤태석
4년 이수현 4년 이유진 4년 이혜경
4년 정의진 4년 조미숙 4년 허경수

□가정관리학과

1년 김수현 1년 박민아 1년 임주영
2년 권영주 2년 박은영 2년 박주영
2년 박혜정 2년 임석영 3년 김수진
3년 신숙영 3년 이재옥 3년 조영미
3년 황정주 4년 김형선 4년 박경하
4년 방윤선 4년 유보경 4년 이경주

□영어교육과

1년 유지영 2년 김홍진 2년 원유선

(7면으로 계속)